

‘AI 윤리’ 원인부터 해결까지... 내달부터 대규모 행사 잇따라

인공지능협, 내달 ‘AI엑스포코리아’
24~26일 코엑스에서 180개사 참가
6월 코엑스에서 ‘AI&빅데이터쇼’
9월 ‘인공지능 윤리대전’ 콘퍼런스

인공지능(AI) 및 AI 학습용 데이터 가공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는 AI 대규모 전시회들이 3월부터 잇따라 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이루다’ 사태로 AI 윤리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AI 윤리 관련 콘퍼런스도 개최돼 더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AI 스타트업 500개사를 회원사로 둔 한국인공지능협회는 AI의 가장 큰 전시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AI 엑스포 코리아 2020(국제인공지능대전)’ 행사를 오는 3월 말에 개최한다. 지능정보산업협회는 ‘AI & 빅데이터 쇼_스마트 테크코리아’를 6월 말 연다. 두 행사는 모두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또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는 부산시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인공지능 윤리 대전’ 행사 모습.

와 공동으로 9월 초에 부산 벡스코에서 ‘인공지능윤리대전’을 진행한다.

현재 정부가 ‘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위해 AI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면서 AI·데이터 관련 스타트업들도 크게 늘어나 1000개사에 육박한다.

한국인공지능협회가 서울메세는 하반기에 개최하던 ‘AI 엑스포 코리아 2020’을 올해는 3월로 시기를 크게 앞당

겨 3월 24일에서 26일까지 코엑스에서 열 계획이다.

협회는 약 180개사의 기업을 참가시켜 300 부스 규모로 전시회를 진행하고, 3만여명의 관람객이 전시회에 방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전시회는 데이터마켓존·AI 솔루션 존·AI+X(융합) 인공지능 응용 존·비즈니스 인프라 존 등관을 구성할

계획이다. AI 스타트업 및 우수기업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협회는 AI 엑스포와 함께 진행하는 IR(기업설명회) 대회 규모를 올해 크게 확대하고 AI 대규모 콘퍼런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능정보산업협회는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AI & 빅데이터 쇼_스마트 테크코리아’를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이 행사는 ‘AI&빅데이터 산업전’을 통해 대표 AI 기술을 소개하며, ‘비주얼 테크쇼’, ‘스마트 기술 산업전’, ‘무인 유통·산업전’ 등으로 구성된다.

협회는 스타트업 유레카 파크, VC(벤처캐피탈) 초청 피칭대회, 스마트테크 톱20 어워드/쇼케이스관, 스마트 딜리버리 특별관, 해외 진출 세미나, AI 로봇 월드컵, 10주년 특별관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구성해 AI 분야 대규모 행사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부대행사로 AI의 기술 트렌드를 조망하는 ‘2021 국제 컨퍼런스 테크콘’은 AI를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하는 ‘AI+X’를 주제로 진행되며, 코로나19로

연택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융합기술 플랫폼 데이’도 개최된다. 또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업계 종사자나 바이어들을 위해 현장 비즈니스 매칭도 진행한다.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KAIEA)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산광역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벡스코와 함께 9월 초 ‘제2회 인공지능 윤리 대전’ 콘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에서 변경해 인공지능 윤리를 주제로 최초로 진행한 종합 콘퍼런스에서는 총 3개 세션에서 학계와 산업계의 AI 윤리 전문가들 10명의 강연이 펼쳐져 호응을 이끌어 냈다.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관계자는 “올해는 우리 사회에 AI 윤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진 만큼, 우리 사회와 전 세계에 발생하고 있는 AI 윤리 문제들을 중심으로 그 원인과 해결 방안까지 제시하는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콘퍼런스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운정 AI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새로 나온 책

‘투기 조장’ 권력가들의 실체

증시와 부동산이 실물경제와 반대로 흘러가는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버블이나 아니냐 의견이 엇갈리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미래의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과거를 통해 우리는 현실을 이성적으로 판단할 근거를 얻을 수 있다. 저자들은 인류 최초의 버블부터 현재까지 300년 역사를 뒤늦은 거품경제 사태를 분석, 시장성-자본-투기라는 3가지 요건의 비이성적 패턴이 ‘버블 트리아앵글’을 형성하며 거품 경제를 촉발한다고 진단한다.

왜 한 번도 주식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회사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걸까. 이들은 단지 친구가 추천했다고 해서 적지 않은 돈을 쏟아부었고, 가보지 않은 나라에 세워진 회사에 거금을 투자하기도 한다.

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권력가들의 실체를 낱알이 까발린다. 300년 버블의 시기 동안 수많은 뉴스와 신문,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은 시장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진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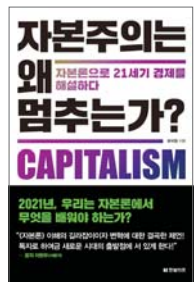
버블:부의 대전환

존 D. 터너, 윌리엄 킴 지음/최지수 옮김/브라이트

지나치게 낙관적인 말들로 현실을 호도했다. 광고성 정보를 객관적 사실인 양 실었고 많은 권력가들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찬양하는 말들을 쏟아냈으며, 옳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 버블을 조장하는데 앞장섰다. 평범한 사람들이 불나방 투기꾼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거대한 호황과 폭락의 시대에서 누가 이익을 얻고 손해를 입었는지 권력가, 정치인, 언론은 이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추적한다. 452쪽. 1만8000원. /김현정 기자 hik1@

자본주의는 왜 멈추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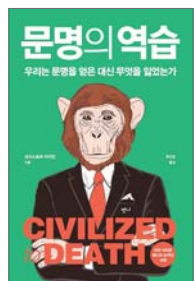
한지원 지음/한빛비즈



독일의 경제학자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경제 위기가 닥칠 때마다 소환되는 고전이다. 1997년 외환위기 때와 2008년 금융위기 때가 그러했고,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자본론 다시 읽기 열풍이 불고 있다. 자본론은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 이후 비주류로 밀려난 경제 이론이다. 노동가치론, 착취론, 자본축적론과 같은 자본론의 핵심 이론을 현대경제학의 개념들과 21세기 경제현상들을 통해 재해석한 책. 352쪽. 1만8500원. /김현정 기자

문명의 역습

크리스토퍼 라이언 지음/한진영 옮김/반니



고대인들의 삶은 수십만 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 창끝이나 화살머리의 디자인, 매장 풍습, 장식 등에서도 그 변화는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미미하다. 그들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똑같은 삶에 붙잡혀 살았을까? 저자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맞다면, 우리 선조들은 ‘발전’이 필요 없을 정도로 행복하고 편안했을 거라고 유추하는 것이 맞지 않나?고 반문한다. 문명은 인간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다. 지금 우리는 본성과 멀어졌음을 알아채지 못한 채 고통 받고 있다. 340쪽. 1만8000원. /김현정 기자

동양, 2·4 대책에 도시정비사업 적극 추진

우리자산신탁과 양해각서 체결 국회대로 지하차도 공사 등 수주

유진그룹 계열인 동양이 정부의 2·4 주택공급 정책에 맞춰 도시정비사업 등에 적극 나선다.

동양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우리금융그룹의 종합부동산 금융자회사인 우리자산신탁과 ‘주택개발 정비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동양과 우리자산신탁은 도시재생사업과 소규모 정비사업 등의 안정적인 부동산 개발을 위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사업의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동양은 도로나 수로, 항만과 같은 교



정진학 동양 대표(오른쪽)가 지난 4일 서울 삼성동 소재 우리자산신탁 본사에서 이창재 우리자산신탁 대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통시설을 비롯해 문화, 교육, 환경 등 사회 인프라스트럭처 등 다양한 건설 산업 솔루션과 건설 플랫폼 서비스분야에서 활발한 수주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달에는 코오롱글로벌, 삼천리

이엔지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한 총공사금액 약 1200억 원 규모의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2단계)건설공사 1공구’ 토목공사를 수주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연말에는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를 통합하고 차량중심의 도시구조를 시민이 쉬고 걷기 편한 광장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인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등 최근 도시재생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정진학 동양 대표는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으로 도시재생과 소규모 재개발 정비사업 시장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자산신탁과 함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 모든 지원과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美 등 ‘K-스타트업센터’ 입주기업 모집

중기부, 벤처·창업기업 120곳

정부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스타트업 등을 추가로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K-스타트업센터(KSC)에 입주할 벤처·창업기업 120곳을 8일부터 3월11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KSC는 현지 거점을 중심으로 한국 창업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현지 창업 생태계 안착→글로벌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글로벌화 플랫폼이다.

현재 미국 시애틀, 스웨덴 스톡홀름, 싱가포르, 이스라엘 텔아비브, 인도 뉴델리, 프랑스 파리, 핀란드 헬싱키에 각각 진출해 있다.

모집대상은 투자실적을 보유한 업력 10년 이내의 벤처·창업기업으로 지역별

특화업종 해당 기업은 우대한다.

특히 K-유니콘 프로젝트,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등에 선정돼 사업 모델의 확장성과 기술력을 검증받은 기업의 경우 투자유치 요건검토 면제 혜택이 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시장검증과 현지 안착을 위한 2단계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현지 사업화 자금 6000만원, 현지 센터의 사무공간 그리고 법률·회계·세무 컨설팅 등 현지 정착을 위한 다양한 연계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선정기업은 현지 진출전략을 고도화하기 위해 오는 5월께 비대면으로 투자자, 파트너사, 정부기관 등을 만나고, 기업별 전략에 따라 협업 관계 고도화, 현지법인 설립 등 해외 사업화를 추진할 8주간(7~10월)의 현지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김승호 기자

리스크관리 전문인력 채용 중기중앙회, 23일까지 접수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제자산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용을 위해 자산운용 및 리스크관리 전문인력을 채용한다고 7일 밝혔다.

경력직은 채권투자, 주식투자,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4개 분야에서 1명씩 채용한다.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고 중기중앙회 인사규정 상 결격사유가 없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이달 23일까지로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는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채용이 결정되며,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2년으로 근무성적에 따라 정규직 전환도 가능하다. /김승호 기자